

2026 Vol.6



자연을 두드리다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

2026 Vol.6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
웹진을 만나보세요



<綠綠, 자연을 두드리다>는 친환경 인쇄공정으로 인쇄합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녹색문화 확산을 실현합니다.



표지 사진은 '수련의 여왕'이라 불리는 빅토리아수련입니다. 빅토리아수련은 해질녘에 꽃을 피워 다음 날 오전이면 지는 신비로운 수생식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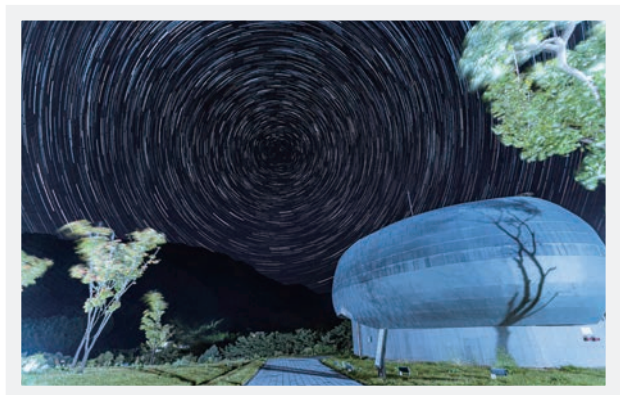
04



12



28



30

어울림 林

현장스케치 04

지금 수목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순간

내가 한 수 위! 12

만나고, 알아가고, 기억하는 시간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장벽 없는 초록 18

식물 곁에서 이웃이 되어갑니다

- 행복농장 협동조합 최정선 상임이사

한수정 News 22

이끌림 林

정원 산책 24

삶이 곧 예술, 자연 속에서 예술이 꽃피기를

- 삶을 예술로 가꾸는 아침햇살정원

반려식물 클리닉 26

섬초롱꽃 & 삼백초

언론인이 본 한수정 28

식물주권을 넘어 세계로, 한수정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

- 박진환 | 이데일리 사회부 부장

전문가가 본 한수정 30

전 세계 식물의 마지막 피난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 조우 |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글로벌 포커스 34

- 생물다양성 인증에서 야생식물 종자보전까지,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 & 국제 식물 종자보전 사업)

세계의 수목원 40

- 폴란드 코르니크 수목원

이벤트

폴폴폴~ 폴네임을 맞춰라! 41

지금 수목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순간

지금, 수목원에서는 새로운 볼거리와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마티스의 작품 세계를 정원으로 옮긴 특별기획전이 펼쳐지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새 식구 미령과 다채로운 토란 품종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수목원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면들을 따라가 본다.

글 | 편집실

국립세종수목원

여름 특별기획전 <앙리 마티스가 그린 오색정원>

“색채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Color is more than what we see with our eyes; it is a language that speaks directly to the heart.”

-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언제나 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디서나 꽃이 피어 있다.”

There are always flowers for those who want
to see them.

온실에 펼쳐진 마티스의 정원

국립세종수목원 지중해온실에 한 폭의 그림 같은 정원이 펼쳐졌다. 20세기 야수파의 거장 앙리 마티스의 작품 세계를 식물과 정원으로 재해석한 예술·정원 융복합 특별기획전 <앙리 마티스가 그린 오색정원>이다.

마티스는 평생 색이 가진 힘을 탐구한 화가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자연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강렬하고 대담한 색채를 사용해 자신이 느낀 감정과 분위기를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마티스의 색채와 작품 세계를 살아 있는 식물과 정원의 풍경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마티스가 사랑했던 도시 니스와 정원, 대표적인 색채와 작품 세계를 모티프로 한 7개의 테마 공간으로 구성된다. 수국과 박쥐란, 한련화, 제라늄 등 다양한 식물이 어우러져 지중해온실 곳곳에 이색적인 정원 풍경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김호숙·원보운 작가를 비롯한 부산예술인협회 소속 작가 23명이 참여한 마티스 오마주 작품 약 50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다섯 가지 색으로 만나는 마티스

정원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분홍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빨강의 열정, 파랑의 자유, 노랑의 빛, 초록의 생명, 분홍의 행복까지— 마티스가 사랑했던 다섯 가지 색을 식물과 정원으로 풀어내, 마치 그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한 풍경을 완성했다.

싱그러운 식물 사이로 지중해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푸른 건축물이 자리하고, 정원을 가로지르는 붉은 수로와 햇살을 머금은 듯한 노란 화분, 그 위로 피어난 분홍빛 꽃들이 어우러진다. 캔버스 위에 머물던 마티스의 색이 식물과 공간을 만나 입체적인 정원 풍경으로 펼쳐진다.

마티스의 색, 빨강 ‘색채의 해방’

그중 ‘마티스의 색, 빨강-색채의 해방’에서는 마티스가 색을 바라보았던 방식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20세기 초 마티스는 사물의 실제 색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서 벗어나 색 자체를 감정과 표현의 언어로 사용했다.

그의 작품에서 빨강은 생명력과 기쁨, 따뜻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색이었다. 마티스의 작품 <붉은 조화>와 <붉은 방>에서도 빨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면 전체의 분위기와 감정을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마티스의 빨강을 정원의 색과 공간으로 확장해 보여준다.

그림 속 핑크빛 작업실로 들어가다

또 하나 눈여겨볼 공간은 ‘핑크 스튜디오’이다. 1948년 마티스가 자신의 작업실을 그린 작품을 모티프로 꾸민 공간이다. 마티스의 실제 작업실이 분홍색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이 느낀 공간의 분위기와 감정을 핑크빛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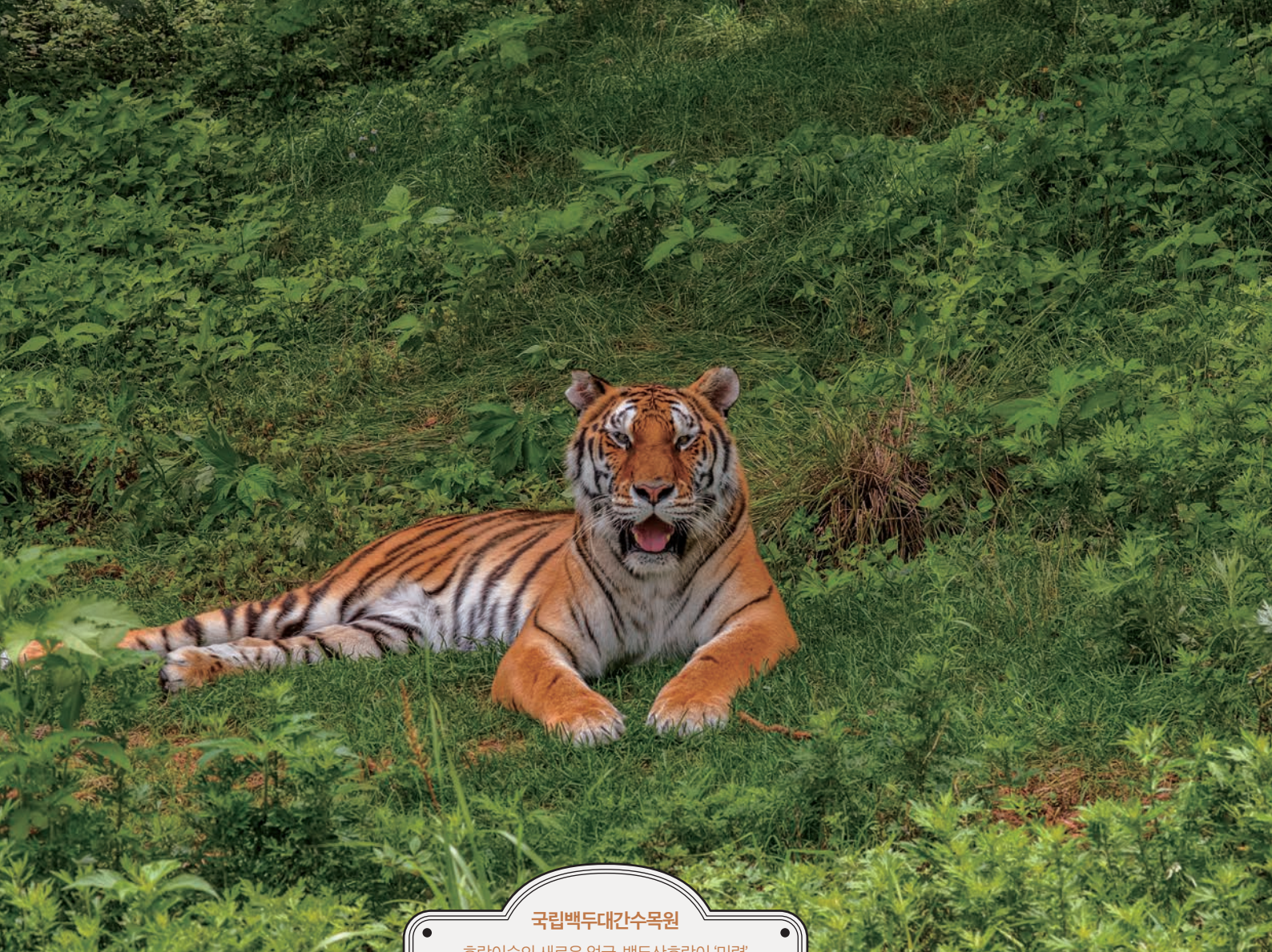
전시에서는 작품 속 색과 분위기를 실제 공간으로 옮겨 마티스의 작업실을 새롭게 풀어냈다. 그림을 바라보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마치 작품 속으로 들어가 그의 색채가 만들어낸 공간을 직접 거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색이 꽃이 되고, 정원이 그림이 되는 순간

<앙리 마티스가 그린 오색정원>에서는 그림과 정원이 하나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그림의 색은 꽃과 잎으로 피어나고, 캔버스 속 형태는 정원의 풍경으로 확장된다. 평소 익숙하게 보아왔던 식물도 마티스의 색채와 함께 바라보면 조금은 새롭게 다가온다.

울여름 국립세종수목원 지중해온실에서는 색이 꽃이 되고, 정원이 그림이 되는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마티스가 바라본 색과 자연을 따라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순간을 경험해보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의 새로운 얼굴, 백두산호랑이 '미령'

“조심스러운 성격이지만 사람을 보면
금세 마음을 여는 다정다감한 호랑이”



호랑이숲에 새 식구가 찾아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2021년 5월 19일생 암컷 백두산호랑이 '미령'이다. 이름은 '아름답고 영리한 호랑이'라는 뜻이다. 대전 오월드에서 지내다 2025년 10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이주한 미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2026년 7월 25일 처음 관람객과 만났다. 조심스러운 성격이지만 사람을 보면 금세 마음을 여는 다정다감한 호랑이 미령. 낯선 호랑이숲에 천천히 적응해온 미령은 이제 방사와 내실을 자유롭게 오가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반가워, 미령!

미령의 첫 공개는 '국제 호랑이의 날'을 맞아 마련된 특별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 급인 백두산호랑이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호랑이숲에서는 미령의 첫 공개와 함께 호랑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행동풍부화 프로그램과 테마전시 등이 진행됐다. 방문자센터에서는 '백두산호랑이, 숲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도 열렸다. 호랑이숲의 운영 현황부터 노령 호랑이의 건강관

리, AI 기반 활동 분석, 사육 현장의 이야기까지 백두산호랑이를 보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나누는 자리였다.

백두산호랑이가 살아가는 숲

미령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호랑이숲'도 함께 눈여겨볼 만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한때 우리 산과 숲을 누볐던 백두산호랑이를 보전하고 야생성을 지키기 위해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호랑이숲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넓은 숲과 방사 공간에서 호랑이들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종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미령을 비롯해 '우리', '한', '도',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온 남매 '태범'과 '무궁'까지 모두 여섯 마리의 백두산호랑이가 생활하고 있다. 호랑이숲을 찾는다면 미령이 어디에 있는지 천천히 찾아보자. 때로는 숲속을 거닐고, 때로는 내실에서 쉬느라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 호랑이가 자신의 리듬에 따라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호랑이숲을 찾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미령이 잘 부탁해!

백두산호랑이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토란속 품종 전시 <토란전>



우리가 알던 토란의 새로운 모습

토란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보글보글 끓인 토란국이나 둥근 알토란을 떠올렸다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련정원에서 조금 색다른 토란을 만나보자. 오랫동안 식재료로 친숙했던 토란이 이번에는 '정원의 주인공'으로 변신했다.

10월 18일까지 열리는 <토란전>은 토란속 식물이 지닌 다양한 매력을 정원에서 보여주는 품종 전시이다. 식용식물로 익숙한 토란부터 최근 개량된 다채로운 관상용 품종까지, 토란속 30종 250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것도 토란이라고?

토란이라고 해서 모두 비슷한 초록색 잎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히토 하이브리드', '블랙 코랄', '화이트 라바' 등 이름부터 개성 넘치는 다양한 품종을 만날 수 있다.

품종마다 잎의 크기와 색, 무늬가 다르고 줄기의 높이도 제각각이다. 짙은 색의 잎부터 독특한 무늬가 들어간 잎까지 하나씩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토란과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넓고 시원하게 펼쳐진 토란 잎은 수련정원의 풍경과 어우러져 여름 정원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먹는 식물에서 보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 토란은 오랫동안 식용과 생활문화 속에서 활용되어 온 친숙한 식물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품종이 개발되면서 정원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름철 왕성하게 자라는 특성과 크고 독특한 잎은 풍성한 경관을 만드는 데도 제격이다. <토란전>은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했던 식용식물이 관상 가치가 높은 정원식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장에서는 토란의 겉모습뿐 아니라 흙과 물을 오가며 살아가는

생태와 곤충과의 관계, 열과 향을 내는 꽃의 특징 등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알고 보면 토란은 식탁 위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식물이다.



만나고, 알아가고, 기억하는 시간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우리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꽃과 잎을 감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식물이 살아가는 환경과 생태적 가치까지 만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직원들의 안내를 따라 '여름동화(花)'부터 새롭게 조성된 유리온실,

황근과 희귀식물원까지 식물원 곳곳을 둘러봤다.

글 | 편집실





Q1. 여름꽃주간 ‘여름동화(花)’는 어떤 행사인가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여름꽃주간 ‘여름동화(花)’는 한여름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관람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식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우리꽃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여름꽃의 매력을 ‘여름동화’라는 콘셉트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여름에 만나는 ‘우리꽃의 이야기’를 ‘동화’라는 이름에 담고, 꽃(花)의 의미를 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꽃을 보고 지나가는 전시가 아니라 ‘보고, 알고, 직접 참여하는 식물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꽃 전시와 함께 생태해설, 가족 셀프미션, 압화 체험, 테라리움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도 자연스럽게 우리 식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Q2. 여름꽃 전시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식물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화 시기를 맞추는 것이 계절 전시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과 강수량, 일조량 등에 따라 개화 시기와 꽃의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여름꽃을 볼 수 있도록 매일 식물의 생육과 개화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방법이나 전시 연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시점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식물을 사람의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자생식물이 가진 자연스러운 생육과 개화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저희 국립한국자생식물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Q3. 꽃주간에는 생태해설, 셀프미션, 압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기획에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특히 가족 관람객을 위한 ‘셀프미션지’는 식물원을 걸어 다니면서 이 시기에 개화하는 자생식물을 직접 찾아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생태해설에서는 단순히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우리 식물이 왜 중요한지, 주변 자연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화 체험 역시 꽃을 단순히 예쁜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식물의 형태와 색, 계절성을 직접 느껴보고, 자신만의 개성을 더해 부채와 액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결국 이번 여름꽃주간의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경험 → 식물에 대한 관심 →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전시 공간에서는 14품종의 무궁화와 함께 황근도 만나 볼 있는데요. ‘무궁화 나무 황근’은 어떤 식물이며,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황근(*Hibiscus hamabo*)은 아욱과 무궁화속에 속하는 낙엽관



목으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 노랑 무궁화’입니다. 일반적인 무궁화가 분홍색이나 흰색, 청색의 꽃을 피우는 것과 달리, 황근은 6~8월경 은은하고 기품 있는 옅은 노란색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등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고,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해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서 지속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안정적인 자생지 회복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산림청에서 희귀식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보호 및 보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무궁화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노란색 꽃입니다. 이름처럼 황금빛을 띠는 꽃이 피기 때문에 한여름의 초록빛 공간에서도 눈에 잘 띄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보면 좋은 부분은 잎의 형태입니다. 같은 무궁화속 식물이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무궁화와는 잎의 생김새가 달라 직접 비교해 관찰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특히 황근은 단순히 ‘예쁜 노란 꽃’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특별한 자생식물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Q5. ‘무궁화 나무 황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가 연구를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황근 복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체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원된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황근은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이고, 과거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자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해 보호종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황근 복원은 민간단체인 ‘제주자생식물동호회’에서 처음 시작해 제주도 내 식물원 등으로 복원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리에서 채집한 종자를 증식하는 등 황근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연구를 통해 단순히 ‘식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과 생육 특성까지 고려해 종을 건강하게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눈앞의 황근을 ‘예쁜 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한 종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복원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Q6. 올해 새롭게 조성한 유리온실은 어떤 공간인가요? 기존 야외 전시원과 다른 차이가 있나요?

새롭게 조성한 유리온실은 야외 전시원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전시하고 관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야외 전시원이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면, 유리온실은 온도와 습도, 빛 등 식물의 생육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전시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생식물이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과 그에 따른 식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기존 야외 전시원과 유리온실을 함께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자생식물도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Q7. 유리온실에서는 어떤 식물들을 만날 수 있나요? 앞으로 이곳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유리온실은 오래된 제주 꽃자왈의 원시림을 콘셉트로 조성했습니다. 제주 꽃자왈 특유의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수령이 오래되고 키가 크며 자연스러운 수형을 가진 교목 위주로 식재했습니다. 현재는 식재와 경관 연출을 마치고 임시 오픈 중이며, 9월 말에서 10월 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일반적인 식물 전시와 차별화해 멸종위기식물과 희귀·특산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생식물의 다양성과 생태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관람객들에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유리온실에서는 파초일엽, 황근, 백서향, 죽절초, 톱지네고사리 등 난대성 수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물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생식물의 다양성과 생태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식물과 경관을 선보이는 한편, ‘이 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이 식물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식 오픈 시 더욱 다양한 경관 연출과 식물들로 관람객들을 찾아 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8. 희귀식물원에서는 지금 어떤 식물들을 만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벌개미취, 참나리, 털기름나물, 마타리, 원추리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처럼 계절감이 뚜렷한 식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식물원의 여름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식물마다 꽃의 형태와 색깔만 아니라 잎의 모양과 자라는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특히 희귀식물원이라고 하면 ‘특별한 식물이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식물 하나하나에도 고유한 생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Q9.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전시와 연구·보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싶은 자생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도 충분히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생식물이라고 하면 어렵고 전문적인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산과 들, 해안과 습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식물들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 생태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생물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식물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식물을 전시하고 연구·보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람객들이 자생식물의 가치를 알고,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우리 식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황근을 비롯한 다양한 자생식물을 직접 보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물이 있었구나’라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자생식물 보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Q10. 마지막으로 두 분이 추천하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여름에는 먼저 여름꽃주간 ‘여름동화(花)’ 전시공간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여름꽃을 비교해보고, 그중 황근처럼 조금은 낯선 자생식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희귀식물원으로 이동해 벌개미취, 참나리, 털기름나물, 마타리, 원추리 등 이 계절에 만날 수 있는 식물들을 관찰해보시길 권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신다면 가족 셀프미션지를 활용해 식물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지나가며 보는 것보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물원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볼 때는 꽃만 보지 마시고 꽃의 모양, 잎의 형



태, 주변에 함께 자라는 식물, 그리고 식물이 자리한 환경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의 식물원은 정해진 코스를 빠르게 관람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꽃을 보러 왔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식물을 만나고, 알아가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곁에서 이웃이 되어갑니다

- 행복농장 협동조합 최정선 상임이사

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일은 때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 된다. 충남 홍성 행복농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허브를 가꾸고 일하며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간다. 농장에서 시작된 만남은 일터를 넘어 이웃과 마을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 식물을 매개로 누구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행복농장을 찾았다.

글 | 편집실



Q. 행복농장은 어떤 곳인가요?

행복농장은 허브를 재배하면서 농업을 통해 사람을 돌보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농장이예요. 농업과 돌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지역의 농장과 협의하는 협동조합 형식의 농장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농장에서 식물을 가꾸고 일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처음 행복농장을 설립했을 때는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시작했어요. 이후 지역의 협업농장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지금처럼 농사와 돌봄, 일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농장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Q. 행복농장에서는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나요?

처음부터 허브를 주작물로 정했어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농장이다 보니, 향기를 맡으며 일할 수 있는 작물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100% 유기농 법으로 재배하고 있고요.



현재는 와일드 루콜라와 바질, 애플민트 등을 재배해 생잎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작물은 지역장터에 보내거나 레스토랑, 개인 거래처에 납품하고요. 바질소금과 바질가루를 만들고, 허브를 자연 건조해 차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 농산물뿐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함께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이 공간도 단순한 판매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작은 공연을 여는 등,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Q.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농업을 경험하고 일로 이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처음부터 고용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충남 지역의 정신요양원이나 관련 시설에서 참여자를 모집해, 농장에서 직접 몸을 움직이고 식물을 돌보는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중 농업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심화 과정으로 이어졌어요.

마을 숙박시설에서 지내면서 2~3주 동안 농장 스태프들과 같은 일정으로 일을 해보는 거예요.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농장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을지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셈이죠. 저희가 중요하게 본 건 일방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맞는지를 충분히 살펴보는 거였어요. 본인이 원하는지도 중요하고, 농장 안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Q. 농장에서 시작된 일과 관계가 마을 안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일정 기간 함께 일해본 뒤 실제 고용으로 이어져 오랫동안 함께한 분들도 계세요. 그중 한 분은 농작업이 어려워지면서 마을협동조합에서 숙박시설과 공간을 관리하는 일로 옮겨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결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행복농장뿐 아니라 마을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농장과 마을협동조합은 독립된 조직이지만 서로의 공간과 활동을 연결하며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농장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마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농촌은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만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중요해요. 마을에서 이분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준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농장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마을 안에서 서로 돌보는 관계가 생기니까 일을 지속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Q.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할 때 일부러 행복농장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았어요. 참여자들이 농장 밖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친환경 농장에 가서 함께 일하기도 하고, 마을 행사나 잔치에도 참여했어요. 점심을 마을 식당에서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쁠 때는 채소를 다듬거나 설거지를 돕기도 했어요.

한 분은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니라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바랐던 것도 그런 관계였고요.

Q. 마을에서 편견을 갖거나 낯설어하던 주민들도 있었을 텐데요. 농장과 마을이 관계를 맺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낯설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모셔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고요.

한번은 마을에서 단체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는 이장님도 정신질환을 가진 두 분이 함께 가는 걸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나눠드리고 버스 안의 쓰레기도 치우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거예요. 다녀온 뒤에는 이장님이 “다음에도 같이 가야겠다”고 하셨고요. 결국 인식은 직접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농장에서도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분들이 계속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나중에는 “우리 농장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Q. 마지막으로, 행복농장이 생각하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특별한 철학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어려운 부분은 전문기관과 연결하면 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함께한 분들과 가능하면 계속 이웃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이 지역 안

에서 관계를 잃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청년도, 어르신도, 저희도 결국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잖아요. 필요할 때 서로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관계가 이 농장과 마을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행복농장에서 만난 ‘돌봄’은 누군가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식물을 기르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농장에서 시작된 작은 경험들이 마을로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도 나타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2026년부터 장애인, 중장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목원 현장의 다양한 직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정원 관리, 자생식물 체험 콘텐츠 제작 등 실제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식물 관리부터 판매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식물을 돌보는 경험이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일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식물과 정원 그리고 수목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연이 사람을, 사람이 사회를 잇는 셈이다. 행복농장에서 만난 초록의 가치가 그러했듯,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역시 수목원·정원을 매개로 소외 없는 참여와 상생의 가치를 넓혀가고 있다.





미국 롱우드가든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월 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롱우드가든(Longwood Gardens)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롱우드가든은 미국을 대표하는 공공 식물원으로서 전사·교육·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목원·정원문화 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바탕으로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원·식물자원 연구 및 데이터 교류, △전문인력 및 연구자 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대국민 교육 확대, △전시 및 행사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인력 교류, 생물다양성 보전, 시민 대상 정원교육 확대 등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정원 디자이너팀, 영국 'RHS 말번 스프링 페스티벌'서 실버메달 등 수상

영국 왕립원예협회(RHS)가 주최한 'RHS 말번 스프링 페스티벌'에서 국내 정원 디자이너 팀(강희혁, 김재현, 정은경)이 5월 6일 실버메달(Silver Medal)과 베스트 컨스트럭션 어워드(Best Construction Award)를 수상했다. 출품작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 풍경을 정원에 담아낸 작품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내 정원 디자이너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해 박람회 참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참여 과정 전반을 지원했다. 또한 참가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향후 해외정원박람회 참가 지원에 활용하는 등 국내 정원 분야 전문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 달성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고객과의 상호작용, △서비스 환경 품질, △지속가능성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별 목표 점수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인접 지역에 '수목원역' 버스정류장 신설해 도보 시간을 단축하고, 국립세종수목원에 물리적 장애 없이 모두가 정원을 누릴 수 있는 배리어프리 정원을 조성하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최초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 등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월 22일 '글로벌 생물다양성 표준(The Global Biodiversity Standard, TGBS)'의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로 등록됐다. TGBS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등 국제 생물다양성 전문기관이 개발한 국제 인증제도로, 산림복원 사업이 실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했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센터는 TGBS의 지역 거점으로서 기관 전문성을 토대로 인증신청 사업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전문평가자 양성, 컨설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센터 출범은 산림복원 정책의 이행 강화와 자연자본 공시 확대에 따라 생물다양성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국제 검증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태복원 사업의 그린워싱을 예방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백두산호랑이 '미령'

국립백두대간수목원서 첫 생일 맞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월 1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 '미령'의 생일을 맞아 특별 생일 파티를 진행했다. 미령은 지난해 10월 대전오월드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이주한 뒤 처음으로 생일을 맞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호랑이의 먹이 특성과 섭식 습관을 고려해 고기케이크를 제공하고, 박스 장난감과 알파카 털을 입힌 피나타를 활용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충분한 적응 기간을 거친 미령은 지난 7월 25일 관람객에게 처음 공개돼 현재 호랑이숲의 새로운 식구로 생활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적 관람객 700만 명 달성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누적 관람객이 70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시작으로 2020년 국립세종수목원과 2022년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차례로 개원하며 계절별 전시와 체험·교육·휴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여온 결과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25년 역대 최다인 34만 명, 국립세종수목원은 10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특히 국립세종수목원은 2023~2024년에 이어 2025~2026년에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역 임·농가와 연계한 자생식물 위탁·계약재배사업, '봉자 페스티벌'을 통한 지역상생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수목원 운영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파트너스'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수목원을 관람을 넘어 교육과 체험, 참여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제기처럼 날아간다"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K-시드볼' 개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현대자동차,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신성철 교수 연구진 등과 함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K-시드볼(Seed Ball)'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시드볼은 식물 종자를 흙이나 특수소재로 감싸 파종하는 기술로, 최근 드론을 활용한 산림복원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구형 시드볼은 급경사지나 훼손 산림에서 목표 지점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어렵고 활착률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K-시드볼은 우리 전통 민속놀이인 '제기' 형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K-시드볼은 공중 투하 시 회전 안정성을 높여 목표 지점에 보다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외부 소재에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종이를 적용해 친환경성도 확보했다.

향후 2022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산림생태복원 사업지에서 현장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의 드론스테이션 기반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시드볼 투하부터 종자의 발아·정착 과정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삶이 곧 예술, 자연 속에서 예술이 꽃피기를

삶을 예술로 가꾸는 아침햇살정원가의 작업실

글 | 편집실



2026년의 첫 번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삶을 예술로 가꾸는 아침 햇살정원'. 처음부터 근사한 정원을 만들겠다고 의도해 만들어진 곳은 아니다. 그저 이곳에 뿌리내린 삶들이 어우러지고, 34년이라는 시간과 온기가 공간에 겹겹이 쌓이며 자연스레 지금의 정원이 되었을 뿐이다.

1991년, 아침햇살(朝陽) 장길섭 씨는 이곳 대둔산 자락 장대울 골짜기에 영성과 명상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살림의집'이라는 조그만 수련원을 세웠다. 그 작은 집에서 시작된 온기의 불씨는 차츰 지경을 넓혀가며 대안학교와 그림책마을을 품어 안았고, 마침내 오늘의 정원으로 결실을 맺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120년 된 한옥 고택의 솟을대문이 가장 먼저 따뜻하게 반겨준다. 이 고즈넉한 한옥은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빨간 벽돌의 '금산지구별그림책마을'과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길을 따라 걸으며 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삶을 예술로 가꾸는 아침햇살정원(이하 아침햇살정원)'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서게 된다.

정원 안쪽에는 우리나라 대표 민간정원인 담양 소쇄원의 취지를 담아 세운 '조양각'이 자리하고 있다. 조양각 앞으로는 작은 냇가가 흐르고, 뒤편으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300여 평의 푸른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또한 20여 그루의 느티나무가 아늑한 숲을 이루는 '아하 정원'은 '삶을 예술로 가꾸는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ALP)'이 열리는 특별한 야외 배움터이기도 하다.

느티나무 숲과 이어지는 '조양서원' 영역에는 세 채의 한옥이 아담하고 정갈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전북 부안에서 옮겨온 120여 년 역사의 서원과 충남 논산에서 옮겨온 150여 년 된 '금구당'이다. 그동안 대안학교의 배움터이자 수련원의 명상 공간으로 쓰이던 고택들은 이제 정겨운 한옥체험 공간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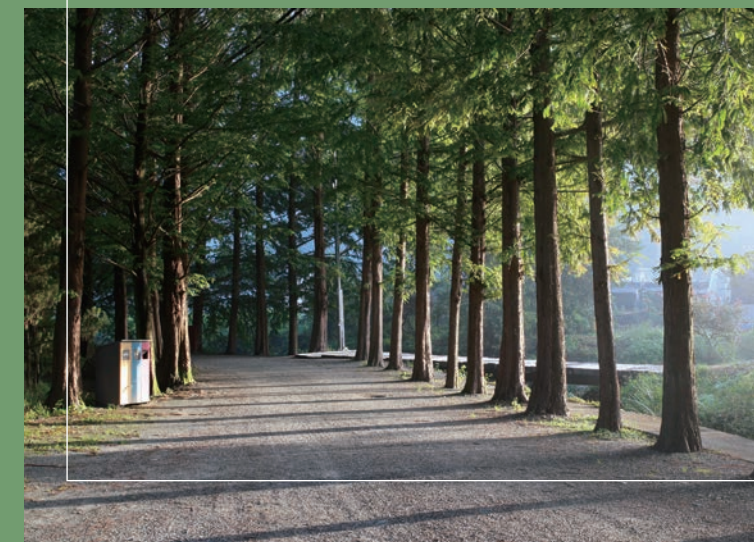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눈에 들어오는 하얀 집 한 채가 있다. 바로 아침햇살정원의 시작점인 '살림의집'이다. "살리다, 살림, 살림살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1991년에 세워진 이곳은 지난 34년간 2만여 명의 발길이 다녀간 수련원이다. 전화기 수화기를 형상화하여 '소통과 연결'을 상징하는 건물 형태가 인상적이며, 마당 한 가운데 자란 느티나무가 아늑한 풍경을 더한다.

정원 곳곳에는 현대미술 작품들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강진모 작가의 '돌의 표상', 안종연 작가의 '사람들', 송일근 작가의 '어머니', 장길섭 작가의 '깨어나기' 등의 작품이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준다.

'내가 진정 되고 싶은 내가 되고, 삶을 예술로 가꾸는 사람이 되자'는 인문학의 가치가 이곳 곳곳에 스며 있다. 사람과 자연, 삶과 예술이 함께하는 이 정원은 지금도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품으며 천천히 자라가고 있다.

information

-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176-1(금산지구별그림책마을 내)
- 운영시간: 11~19시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입장료: 성인 8,000원 / 어린이 5,000원



섬초롱꽃

#우리나라 동쪽 끝 #아래로 피는 꽃

자생지 울릉도·독도 자생 (우리나라 동쪽 끝)

특징 - 대한민국 동쪽 끝,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식물'입니다.
- 보라색, 흰색의 초롱 모양 꽃이 아래를 향해 무리 지어 피며, 꽃잎 안쪽의 질은 반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만나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꽃나무원, 단풍식물원



어디에 두면 잘 자라나요?

- 햇빛이 잘 드는 양지가 가장 좋습니다. 베란다 창가처럼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 반그늘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 단, 통풍이 잘되지 않으면 잎이 무르기 쉬우므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심나요?

- 물이 잘 빠지는 사양토가 이상적입니다. 화분 재배 시, 일반 상토에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30~40% 이상 섞어 배수성을 높여주세요!
- 척박한 환경에도 적응해 살아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를 썩게 만들 수 있어요. 비료는 거의 주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주어야 합니다.

물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 과습과 건조에 매우 민감해요. 겉흙이 확실히 말랐을 때 한 번에 듬뿍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세요.
-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과습으로 뿌리가 썩지 않도록 물주기 간격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꽃에 직접 물이 닿으면 쉽게 무를 수 있으므로 흙 쪽으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세요.

삼백초

#우리나라 남쪽 끝 #위로 뻗는 꽃

자생지 제주 자생(우리나라 남쪽 끝)

특징 - 꽃, 잎, 뿌리 세 부분이 하얗게 변한다고 하여 '삼백초'라는 이름이 붙은 제주 자생식물입니다.
- 여름이면 줄기 위쪽의 잎 2~3장이 하얗게 변하고, 곧게 뻗은 이삭 모양의 흰 꽃을 피웁니다.

여기서 만나요!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원 내 지역수집지(제주도)



어디에 두면 잘 자라나요?

- 하루 6시간 이상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건강한 꽃을 피우고 잎이 하얗게 변하는 특성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광량이 부족하면 개화율이 떨어지고 특유의 하얀 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 추위에는 비교적 잘 견디는 다년생 식물이지만, 실내에서 키울 때는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곰팡이성 질병이나 해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변 습도 관리와 통풍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떻게 심나요?

- 유기물이 풍부하고 수분을 잘 머금은 비옥한 양토를 선호합니다. 상토에 퇴비를 적당히 섞어주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 습지 식물이므로 토양이 항상 일정 수준의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분 흙 표면의 첫 마디 정도가 살짝 마르기 시작할 때 지체 없이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 봄과 여름철 성장기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물을 듬뿍 줍니다. 건조해지면 잎이 축 처지고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마릅니다.

식물주권을 넘어 세계로, 한수정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

글 | 박진환 (이데일리 사회부 부장)



식물주권이 중요한 환경 의제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3요소인 영토·국민·주권 중 식물주권을, 영토 안에 포함된 생물다양성 요소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식물에 대한 주권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수정은 한반도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품종 보호와 산업화를 이끄는 등 식물주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한수정은 기후위기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와 미래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식물 연구·보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유럽·아시아·북미의 대표 식물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물론 국제 인증 거점 확보와 종자 중복보전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적 식물연구기관들과 협약 체결...

미래 식량자원 및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확대

한수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물연구기관들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



2026년 6월 16일 폴란드 수목학연구소와 업무 협약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 현판

하며 산림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야생식물 종자저장시설(밀레니엄 시드뱅크)을 운영하는 영국왕립식물원(Kew Gardens), 유럽 대표 식물연구기관인 벨기에 메이서식물원(Meise Botanic Garden)과의 협약이 대표적이다.

한수정은 작물 재래원종(CWR, Crop Wild Relatives) 분야의 EU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구축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CWR 공동 연구와 종자·표본·데이터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전통 염료식물인 ‘쪽(Korean Indigo)’ 연구 등 생물다양성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융합형 국제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 중이다.

유럽 및 북미 네트워크 확장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3,500여 종의 글로벌 식물 자원을 보유한 폴란드 과학원 수목학연구소(ID PAS)와는 한반도 기원 식물자원 발굴 및 생태계 공동조사를 추진 중이며, 미국 롱우드가든(Longwood Gardens) 및 모튼수목원(The Morton Arboretum)과도 정원·식물자원 연구 데이터 교류, 참나무과(Oak) 보전원 공동 조성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시드볼트...

아시아 넘어 전 세계 종자 보전 허브로 도약

한수정이 운영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BGSV)’와 시드뱅크는 기후위기에 맞선 전 세계 야생식물 종자 보전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수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12개 회원국 및 FAO, BGCI, IUCN 등 국제기구와 함께 ‘AFOCO-KOAGI CWR 워킹그룹’을 발족해 아시아 지역 CWR 종자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간 종자기탁, 공동 연구, 전문인력 교

류를 통해 아시아 식물 자원 보전 허브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 범위로 종자 기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및 이그지스자산운용과 협력하는 ‘GSC Grants Program’을 통해 아프리카·남미·유럽 등 전 세계 18개국 20개 기관이 수집한 핵심 야생식물 종자를 시드볼트에 안전하게 중복 기탁받는 글로벌 보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그린워싱 예방과 국제 표준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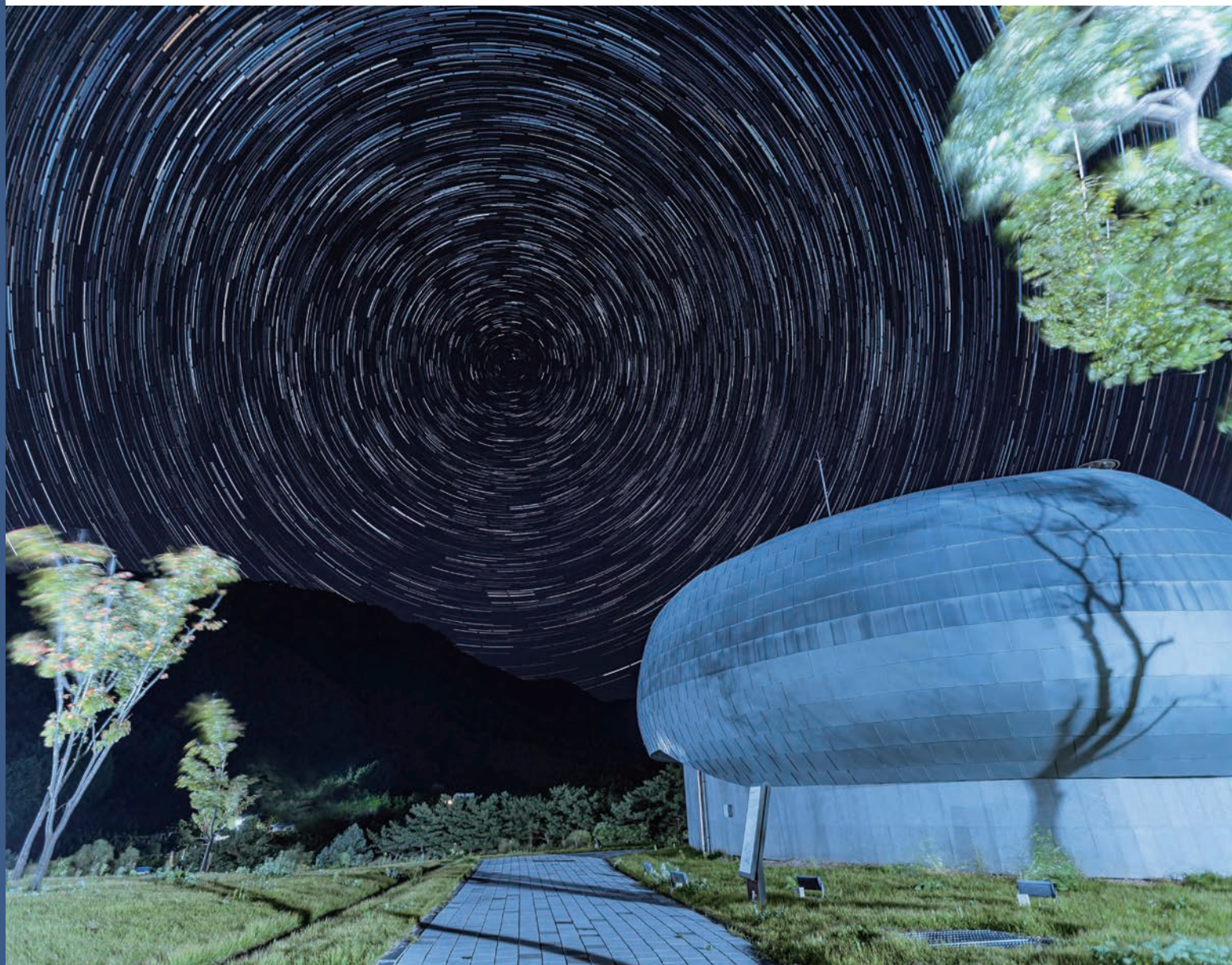
국내 최초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 등록

한수정은 국제적인 산림 생태복원 평가 기준을 선도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등 글로벌 전문기관이 개발한 국제 인증제도인 ‘글로벌 생물다양성 표준(TGBS, The Global Biodiversity Standard)’의 국내 거점인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로 공식 등록됐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최초의 성과다. TGBS는 단순 식재 규모를 넘어 자생종 우선 사용, 서식지 보호, 외래종 방지 등 8가지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산림복원 사업이 실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한수정은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평가자를 양성함으로써 국내외 생태복원 사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예방하고 공공·민간 ESG 경영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세계적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중심으로 한 종자 보전, 국제 표준 인증센터 운영을 발판 삼아 한수정이 글로벌 생물다양성 네트워크의 중심축이자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식물의 마지막 피난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글 | 조우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2026년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기상청이 분석한 ‘2026년 7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8.9일을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는 2024년(8.8일)을 넘어 역대 최다를 갱신했다. 이러한 기록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새로운 기후의 표준(new normal)이 되어가고 있다. 같은 시기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이 펴낸 「세계 수목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World's Trees)」는 충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전 세계 약 60,000여 종의 수목 가운데 30%인 약 17,500종이 멸종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적어도 142종의 수목이 멸종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했다. 2030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종의 90% 이상을 보존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지와 프레임워크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공허한 선언에 그친다. 바로 이 물음에 한국은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 경상북도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하 약 60m 암반층, 온도 영하 20도·상대습도 40%가 유지되는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저장시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Baekdudaegan Global Seed Vault, BGSV)가 그것이다.

필자는 지난 수년간 BGSV의 운영과 국제협력 확대 과정을 직접 관찰해왔다. 본 고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BGSV가 왜 ‘전 세계 식물의 마지막 피난처’로 불리는지 그 자연적·기술적·외교적 근거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서 어떤 과학 외교(science diplomacy)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자연이 선별한 위치, 기술이 완성한 금고

시드볼트가 무엇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왜 하필 이곳인가’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BGSV)가 봉화 깊은 산속에 자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주산맥으로, 동북아시아 생물다양성의 핵심 연결축이자 생태 통로이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4,000여 종의 자생식물 가운데 상당수가 이 산맥을 중심으로 진화적 분화를 겪었으며, 그 유전적 다양성은 동아시아 전체 생물 지리학의 보고가 축적된 공간이다. 자연적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드볼트는 인위적 재난뿐 아니라 기술적 결함에도 견뎌야 한다. BGSV는 지하 암반층에 건설돼 지진, 산불, 극단 기온 등 외부 충격을 차단하는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내부는 영하 20도(-20℃), 상대습도 40%로 상시 유지되는데, 이 조건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가 채택한 표



2024년 8월 14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준과 일치한다. 영하 20도라는 저온 환경은 씨앗의 대사를 사실상 정지 상태로 만들어,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까지 활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학적 조건이다. 저장 용량은 약 200만 점(Accession)으로, 향후 세계 야생식물 자원의 수요 증가를 감당할 여유를 두고 설계되었다.

그렇다면 스발바르와 같은 조건의 시설이 세계에 두 곳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명확하다. 스발바르 시드볼트는 농작물(오곡, 감자, 옥수수 등) 종자 보전에 집중한다. 이에 반해 BGSV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야생식물(wild plant) 전용 영구저장시설이다. 이는 시설의 단순한 차별화가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인간이 재배하지 않은 야생식물은 생태계 회복탄력성(ecological resilience)의 본질적 원천이며, 그 소실은 돌이킬 수 없



는 생태계 붕괴의 전조를 뜻한다.

야생식물 종자의 보전은 단순히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한 '생태적 자산(Ecological Capital)'을 비축하는 행위와 같다. 특히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복원력을 가진 야생식물 유전원은 훼손된 생태계를 되살릴 핵심 열쇠가 된다. 즉, 시드볼트는 미래의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명의 보험'인 셈이다.

중복보전과 국제 협력

BGSV의 진정한 가치는 시설의 물리적 우수성에만 있지 않다. 운영의 철학이 더욱 핵심이다. 시드볼트가 채택한 원리는 '중복보전'이다. 각국·각기관의 종자은행이 보유한 야생식물 종자의 일부를 추가로 기탁받아 별도 저장함으로써, 원래 보유지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종자가 영원히 남도록 하는 위험분산 전략이다. 즉 BGSV는 '보존의 최종 백업(backup copy)' 역할을 한다. 개소 이후 BGSV에 입고된 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반출하지 않으며, 실제로 한 번도 반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 엄격함을 방증한다. 이 원칙은 곧바로 데이터로 입증된다. 2026년 6월 기준 BGSV에는 전 세계 6,404종 290,895점의 야생식물 종자가 보관되어 있다. 이는 개소 직후 수천 점 규모였던 저장량을 약 8년 만에 약 60배 이상 확장한 결과다. 이 가운데 국내 종자 비중이 약 58.5%, 국외 종자가 약 60%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설로 자리 잡았다. 종자 기탁기관은 국내·외 100여 개 기관에 이르며, 협력 환경은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아프리카·중남미·유럽 대륙의 식물원·종자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BGSV는 단순히 종자를 보관하는 저장고를 넘어 국제적 보전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면서도 기후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의 멸종위기 식물 종자를 우선적으로 기탁받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자국 식물 주권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 외교'의 성공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참고로 오랜 비교 대상이었던 스발바르 시드볼트는 2026년 6월 둘째 정기 입고에서 11개 유전자은행의 15,000여 종자 샘플을 추가하며 누적 보관량 140만 점을 돌파했다. 스발바르가 작물, BGSV가 야생식물이라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두 시설이 함께 글로벌 보전망의 양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2026년 현재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2025년 출범한 '국제 식물 종자보전 사업(Global Seed Conservation Grants Program)'은 BGSV가 단순히 저장시설을 넘어 국제협력의 허브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활동은 생물다양성 협약(CBD)과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체제하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이 강화되는 시대, 야생식물 종자의 평화적·과학적 공유는 그 자체로 과학 외교의 한 형태다. 특히 이지스자산운용과의 ESG 협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은 글로벌 시드볼트가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BGSV는 '자연이 선별한 위치, 기술이 완성한 금고'가 '외교가 운용하는 자산'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증언하고 있다.

'시드볼트 5030'과 보전의 약속

시드볼트의 가치는 언제 종자를 '꺼내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들고 있는가'에서 결정된다. 이 시간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매년 5월 30일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날'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목표 연도 2050년의 숫자 '5'와 보전 목표 비중 30%의 '30'을 결합해 '5030'이라는 슬로건을 도출했다. 이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야생식물 종의 약 30% 저장이라는 명확한 수량 목표와 시간표를 동시에 천명한 것이다.

이 '5030'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와 정확히 호응한다. GBF는 2030년까지 멸종위기 종자의 90% 보전을, 동시에 유전자원 접근·공유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제시한다. BGSV의 5030 약속은 야생식물 영역에서 GBF의 의미를 구체화한 운영적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전이 필요한 종의 70% 이상이 서식지에 존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BGSV의 역할은 자국 보전을 넘어 지역의 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약속은 시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시드볼트 탐험대'와 같은 가족 캠프, 교육 전시,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BGSV를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닌 국민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시드볼트의 날 행사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시민 단체, 학생 봉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는 GBF가 강조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whole-of-society engagement)' 원칙과 정확히 부합하며, 생태 감수성(ecological sensitivity)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사회적 보전(social conservation) 패러다임의 실천이다.

문화적 차원에서도 의미는 작지 않다. 봉화 산속 깊은 곳에 '한국판 노아의 방주'를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생태문화의 새로운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봉자페스티벌'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BGSV의 추상적 개념을 경험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역사회에 '자신이 산 위의 금고를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는다. 이는 지역 정체성과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의 동시 보전이라는 한국형 보전 모델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과학 외교의 중심으로 서다

1958년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의 만년설 속에 첫 시드볼트 구상이

제기된 지 약 70년. 그사이 인류는 수많은 종을 잃었고, 지금도 빠르게 잃고 있다. 그 시간의 무게를 한국 봉화의 산속, 지하 암반이 받고 있다. BGSV는 단순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에 건네는 약속이다.

결국 BGSV가 상징하는 가치는 '씨앗의 보전'을 넘어 '미래 세대의 선택권 보전'이다. 노르웨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생태지리학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독자적 보전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그 모델이 ODA 당사국에서 보전 당사국으로 전환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기술을 집약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사례는 한국이 글로벌 생물다양성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제적 모범이다.

자생식물 한 종, 종자 한 점은 윤리적으로 작아 보인다. 그러나 그 작은 점을 지키는 일은 한반도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결정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생물다양성의 안전망을 완성한다. 백두대간의 깊은 산중에 심어진 이 생명의 금고가, 전 세계 식물의 마지막 피난처로서 인류의 약속을 영구히 품고 있기를 기대한다.



생물다양성 인증에서 야생식물 종자보전까지,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글 | 편집실

- 글로벌 생물다양성 표준(TGBS) 인증센터,
국내 최초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 출범
- 세계의 야생식물 종자를 지키는 글로벌 협력,
국제 식물 종자보전 사업(GSC Grants Program)

글로벌 생물다양성 표준(TGBS) 인증센터 국내 최초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 출범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 복원성과 평가의 8대 핵심기준

기존 서식지
보호

적절한 대상지
선정

이해관계자
참여

생태계 온전성
회복

침입 외래종
관리

희귀·특산식물
우선

유전적 다양성
증진

모니터링 및
적응적 관리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되면서 생태계 복원에서도 단순히 식재 중심의 복원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성과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회 세계식물원총회(GBGC)를 계기로 국제 복원제도인 '글로벌 생물다양성 표준(TGBS, The Global Biodiversity Standard)'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산림생태복원 지원 역할 확대를 위한 국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사전조사와 산림청 협의를 거쳐 TGBS 사무국에 지역 허브 등록 의사를 전달하고, 기관의 기술적 전문성과 생태계 복원사업 수

행 경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춰왔다. 허브 리더와 평가자 후보를 구성해 TGBS 방법론에 대한 전문교육과 현장 실습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26년 5월 22일 국내 최초 TGBS 지역 허브인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The Global Biodiversity Standard, KoAGI Hub, Korea)'로 공식 등록됐다.

TGBS는 생태계 복원사업이 실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제 복원 표준이다. 단순 조림이나 탄소흡수량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문헌조사와 원격탐사, 식물·동물·사회적 요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종합해 복원의 과정과 성과를 살펴본다. 단순 식재부터 산림복원, 농업업 등 다양한 육

상 생태계 복원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복원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복원 품질을 높이는 것도 TGBS의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 국제 생물다양성 인증센터는 앞으로 국내외 생태계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TGBS 기준에 따른 평가와 인증을 지원한다. 원격탐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계획과 현장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 기준에 따라 현장을 평가할 전문 평가자(Assessor)를 양성하고, TGBS 사무국 및 해외 지역 허브와 협력해 국제 복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재 울진 보호구역 내 산불 복원지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 회복 과정을 직접 조사·평가하는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자연기반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인증과 컨설팅을 본격화하고, 현장평가 경험을 축적해 국내 생태계 복원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대응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제 기준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원사업이 실제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국내 자연기반 복원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의 우수한 산림생태복원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센터 주요 역할

생태계 복원사업
평가·인증 지원

복원사업
컨설팅 및 멘토링

전문 평가자
양성

국내외 복원
네트워크 구축

세계의 야생식물 종자를 지키는 글로벌 협력, 국제 식물 종자보전 사업(GSC Grants Program)

2024년 5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BGCI 간
업무협약(MOU) 체결

2024년 8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BGCI와 전 세계 야생식물 종자 보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방안 협의

2025년 3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운영위원회 구성
- 멸종위기종 신규 확보와 현지외보전 역량
강화를 위한 GSC Grants Program 개발

2025년 5월
BGCI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기관 대상
사업 참여 공개 모집
- 1차 52개 기관이 지원

2025년 7월
운영위원회 평가를 거쳐 전 세계 18개국 20개
기관 최종 선정
- 아프리카 6개국, 남미 5개국, 유럽 5개국,
아시아 1개국, 북미 1개국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수목원·식물원 참여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기존 교류 중심
협력에서 실제 종자 기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

주요사업 내용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으로 전 세계 야생식물의 생존 위협이 커지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식물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자를 장기적이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종자 장기저장 인프라와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의 글로벌 식물원 네트워크를 연계한 국제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한수정은 2024년 BGCI와 전 세계 야생식물 종자 보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2025년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GSC Grants Program)’을 출범했다. 이 사업은 한수정과 BGCI가 3년간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으로, 첫해에는 전 세계 20개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기존에는 국가나 기관 간 개별적인 양자협력을 중심으로 종자를 기탁받았다면, 이제는 BGCI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러 국가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제로 종자보전 방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기존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종자 기탁의 범위도 아프리카·남미·유럽·북미 등 전 세

계로 넓어진다. 특히 생물다양성 핫스팟과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세계 야생식물 종자를 확보함으로써 보전이 시급한 식물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은 세계 각지의 수목원·식물원이 현지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야생식물 종자를 수집·처리하고, 이를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BGCI의 국제 네트워크와 한수정의 보전 인프라를 결합해 현지에서 확보한 야생식물 유전자원을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향후 생태계 복원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으로 선정된 해외기관이 현지에서 수집·처리한 야생식물 종자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순차적으로 중복 저장된다. 사업은 3년간 지속되며, 매년 새로운 참여기관을 발굴해 국제 종자보전 네트워크를 넓혀갈 예정이다. 미선정 기관에도 신청서 보완사항 등을 제공해 차년도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국제 종자보전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폴란드 코르니크 수목원

Kórnik Arboretum



소속 | 폴란드 과학원 수목학연구소
(Institute of Dendrology, Polish Academy of Sc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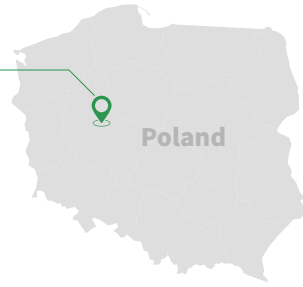
위치 |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코르니크(Kórnik)

설립연도 | 1826년

면적 | 약 30ha(약 9만 평)

주요기능 | 수목 유전자원 수집·보전, 수목학 연구, 환경·자연교육 및 대국민 관람

폴란드 코르니크 수목원



Poland



코르니크 수목원은 1826년 코르니크 성(Kórnik Castle) 주변의 정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수목원이다. 중부유럽에서도 손꼽힐 만큼 풍부한 수목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폴란드 과학원 산하 수목학연구소의 연구·교육 기반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북반구 온대지역을 중심으로 약 3,500종 및 품종의 수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와 북미지역의 목본식물 컬렉션이 풍부하다. 자작나무속(*Betula*), 인동속(*Lonicera*), 포플



러속(*Populus*), 수수꽃다리속(*Syringa*), 조팝나무속(*Spiraea*) 등이 주요 컬렉션으로 꼽힌다. 전나무·가문비나무·소나무·주목·촉백나무·향나무 등 다양한 침엽수와 목련·철쭉류·개나리 등 관상수 컬렉션도 보유하고 있다.

오랜 시간 수집·보전해 온 식물자원은 오늘날 다양한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목의 생장과 환경 적응, 생태·생리,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자연환경교육과 대국민 관람을 통해 식물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도 알리고 있다.

2026년 설립 200주년을 맞은 코르니크 수목원은 역사적 수목 컬렉션을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의 역할을 이어가며, 중부유럽의 주요 수목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자 QUIZ 이벤트!



이 식물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무궁화속 식물이에요.
여름이면 노란색 꽃을 피우고, 우리가 흔히 보는 무궁화와는 잎의 생김새도 조금 달라요.
한때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으로 지정되었지만, 복원 노력의 결과
2022년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힌트 <내가 한 수 위!>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참여 기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16일

당첨 선물 : 홈가드닝 키트

당첨 인원 : 10명

선물 발송 : 2026년 10월 20일(당첨자는 개별 통보 예정)

※ 이 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음

QR코드 스캔 후
정답을 입력해주세요.

